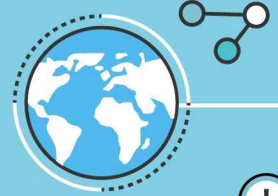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 금주의 GVC Insight



#### 최신 GVC 해외 이슈

**【자동차, EU】** EU, 2035년 내연기관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신차 판매금지 법안 확정

**【IRA, 독일·프랑스】** 독일-프랑스 정상, 美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해 EU 차원 강력 대응 합의

**【가스, EU】** EU 가스 가격상한제 합의 불발, 11월 재논의 예정

**【리튬, 세계】** '하얀석유' 리튬 톤당 1억원 넘어 역대 최고가 기록

**【암모니아, 중국】** 러시아 천연가스 제재로 중국의 암모니아 수출 490배 ↑

**【설탕, 인도】** 인도, 설탕 수출 제한 1년 연장, "연간 수출량 800만톤으로 통제"

**【코로나, 중국】** 中,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로 폭스콘 노동자 집단 탈출 및 디즈니랜드 봉쇄

**【FDI,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해외기업 대상 新수도 지역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 발표

**【항만·물류, 독일】** 독일 정부, 함부르크 컨테이너 항만에 中 국영 해운사 지분 투자 승인



#### GVC 뉴스 더하기

- ① 美 백악관, 배터리 제조 및 산업 지원 계획 발표
- ② 중국의 對美 희토류 수출규제 가능성과 미국 공급망 현황



#### GVC 기초상식

인코텀즈(INCOTERMS) 2편 - 세부 내용



#### GVC 돌보기

러-우 전쟁發 글로벌 LNG 시장 공급망 변화 동향



#### GVC 전문가

“교역의 무기화”  
-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 더 찾아보기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기술혁신전략



#### GVC 소식통

- ① 2022년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3기 선정계획
- ②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사업 및 세미나 안내
- ③ 공급망 관련 지원사업 및 포럼, 상담회 안내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 최신 GVC 해외 이슈

### ■ **【자동차, EU】 EU, 2035년 내연기관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신차 판매금지 법안 확정**

- EU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10.27일 2035년 내연기관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 신차 판매 금지 법안에 최종 합의
  - 법안은 2035년 휘발유·경유 내연기관 신차를 판매 금지하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21년 대비 승용차 55%, 소형화물차 50%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법안에 따라 완성차 업체는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며, 집행위는 2025년부터 격년으로 육상운송 분야 탄소중립 추진경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발표
  - 연간 승용차 10,000대, 밴 등 소형화물차 22,000대 이하 생산 업체는 2030년 CO<sub>2</sub> 감축 중간목표가 면제되나, 2035년 완전 탄소중립 목표는 준수해야 함
- 법안 '전문(recitals)'에서는 탄소중립 연료(e-Fuel)를 사용한 차량은 2035년 이후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음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10.28)

### ■ **【IRA, 독일·프랑스】 독일·프랑스 정상, 美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해 EU 차원 강력 대응 합의**

- 독일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
  - 양국 정상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조치라며 비판하면서 EU 차원에서의 공동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
  - 또한,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및 미국 영토내 투자 기업에 대한 에너지 혜택을 현행 법안대로 계속 추진할 경우 EU도 미국과 유사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
- 앞서 프랑스 대통령은 EU도 미국의 'Buy American Act'와 유사한 'Buy European Act'를 도입하여 유럽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할 것을 주장한 바 있음
  - 다만, 양국 정상은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이 먼저 필요하며, 차주 개최될 'EU-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TF'에서 EU의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힘

출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10.28)

### ■ **【가스, EU】 EU 가스 가격상한제 합의 불발, 11월 재논의 예정**

- 로이터통신은 EU 27개 회원국 에너지 부처 장관들이 10.25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 회의에서 앞서 EU 집행위가 제안한 유럽 가스 가격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 시장에 한시적 가격 상한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여 합의에 실패했다고 보도
  - 이날 의장을 맡은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부 장관은 "시장 공황에 대비해 과도한 가격 상승을 제한할 '변동가격 상한제' 도입에 대해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으나, 도입 방안에 입장차가 있었다"고 설명, 또한 "상한제를 도입해도 우리가 필요한 가스를 계속 살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언급하며 11.24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힘
- 독일과 네덜란드는 가격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가스 수출국들이 對유럽 공급을 꺼리면서 구매 자체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벨기에와 이탈리아, 폴란드 등 12개국은 인플레이션을 제한하기 위해 어떻게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

출처: 뉴스원(22.10.26), 로이터(22.10.25)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 ■ [리튬, 세계] '하얀석유' 리튬 톤당 1억원 넘어 역대 최고가 기록

- 전기차 배터리 생산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양극재 핵심광물 리튬 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 상승.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10.24일 중국산 탄산리튬 가격은 1년 전 17만4,500위안 대비 3배 이상 급등한 톤당 54만500위안(약 1억700만원)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
  - 중국(14%)은 호주(55%), 칠레(26%)에 이어 리튬 생산량 세계 3위이지만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등 리튬 화합물 생산량은 세계 1위로 중국에 대한 정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
- 리튬 가격 상승세는 전기차 수요 급증에 기인하며,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리튬 수요는 올해 52만9,000톤에서 '25년 104만3,000톤, '30년 273만9,000톤으로 급증할 전망
  - 업계 관계자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삼원계(NCM)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더 높으며, 배터리 소재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리튬이기에 가격이 더욱 상승한다”고 분석
-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이 리튬 가격 급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는 바, 포스코홀딩스 측은 올해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최근 리튬 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IRA 이후 시장에서 전기차 업체들이 리튬 소재 확보 선점을 위한 수요가 늘어 단기 급등했으며, 연내 톤당 8만달러(약 1억1,600만원)를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밝히기도 했음
  - 8.16일부터 시행된 IRA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 공제 혜택(대당 최대 7,500달러)을 받으며, 내년부터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 지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배터리 핵심 광물을 40% 이상,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함

출처 : 뉴스원(22.10.24), 뉴시스(22.10.25)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 [암모니아, 중국] 러시아 천연가스 제재로 중국의 암모니아 수출 490배 ↑

- 암모니아 합성에 필요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중단으로 유럽 암모니아 생산량이 70% 감소했으며, 그 영향으로 통상 월 100톤이던 중국의 암모니아 수출량이 '22.5월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2.9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490배 급증한 5만 8천톤 기록
  - 합성 암모니아는 질소 비료의 주 원료로 생산 원가의 70~80%를 차지하며 1톤 생산시 약 850~900m³ 천연가스 필요. 합성 암모니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의 '21년 생산 능력은 6,488만톤, 유럽은 1,900만톤 수준
-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화학기업 BASF는 유럽에서의 합성 암모니아 생산을 줄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구매하는 실정이라고 밝혔으며, 노르웨이 비료기업 야라인터내셔널 역시 10.20일 금년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천연가스 조달 차질 등으로 생산 능력을 축소했다고 공개
- 유럽 각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산, 카타르산 천연가스 수입으로 비축량을 늘리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난방용으로 유럽의 합성 암모니아 생산 감소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출처: 연합뉴스(22.10.28), 시사저널(22.10.28)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 ■ [설탕, 인도] 인도, 설탕 수출 제한 1년 연장, “연 수출량 800만톤으로 통제”

- 지난 5월부터 설탕 수출을 제한했던 인도 정부가 '23.10월말까지 설탕 수출 물량을 약 800만톤으로 제한하여 수출 제한 기간을 연장한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
  - 인도는 세계 설탕 생산 1위이자 수출 2위 국가로 인도대외무역총국(DGFT)은 '21.10~'22.9월까지 약 1,120만톤의 설탕을 수출하여 국내 소비에 사용할 설탕이 부족해졌다고 발표
- 인도의 올해 설탕 생산량은 약 3,600만톤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설탕 가격이 요동치는 등 국내외 시장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국제 설탕 가격은 세계 수출 1위 국가인 브라질의 생산량 감소와 석유 가격 인상 등으로 불안정, 브라질에서는 바이오에탄올을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데 석유 가격이 오르자 사탕수수로 만드는 에탄올의 수요가 폭증하여 사탕수수 공장들이 설탕 대신 에탄올 제조로 전환하는 등의 영향으로 설탕 가격 불안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

출처: 파이낸셜뉴스(22.10.30), 연합뉴스(22.10.30) 등 언론보도 KOTRA 뉴델리무역관 종합

## ■ [코로나, 중국] 中,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로 폭스콘 노동자 집단 탈출 및 디즈니랜드 봉쇄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글로벌 아이폰 제조 허브인 정저우 폭스콘 공장 노동자들이 집단 탈출에 나선 상태로, 이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폐쇄루프'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장 내 감염 사례가 속출하자 무기한 격리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
  - 폭스콘 정저우 공장에는 30만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 중으로, 10.20일 확진자가 발생해 봉쇄에 들어갔던 상황
  - 결국 10.30일 폭스콘은 노동자의 '자율적 거류 선택' 방침을 발표하여 근로자의 자율 의사를 존중하여 폐쇄루프 조치를 해제하고, 귀향을 희망하는 근로자 대상으로 차량 서비스를 제공, 사내 식당도 10.31일부로 정상 운영 개시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中 방역당국은 상하이 디즈니랜드 방문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10.31일 디즈니랜드를 잠정 폐쇄하고 방문자들이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야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 중.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방역 방침 준수를 위한 조치임을 밝혔으나 SNS에 관광객들이 밤 10시 30분까지 갇혀있었다는 내용이 올라오는 등 비판 여론 확산
  -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이유로 갑작스럽게 폐쇄하며 당시 공원에 있던 약 3만 명의 관광객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갇혀있던 바 있음

출처: 동아일보(22.10.30), 서울신문/MBC(22.11.01) 등 언론보도 KOTRA 정저우무역관, 중국지역본부 종합

## ■ [FDI,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해외기업 대상 新수도 지역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 발표

- 인도네시아 국토부는 신규 수도로 해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수도 지역에 투자시 기존 외국(법)인의 토지 사용권 연한을 60년에서 연장하는 토지 사용권 혜택 발표
  - 초기 80년 토지 사용권은 1차 30년, 2차 30년, 3차 20년으로 나눠 승인하며, 이후 사업 타당성, 지역 경제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80년 연장하는 등 총 160년까지 사용을 허용할 계획
  - 쇼핑몰, 교육, 병원, 금융, 주거단지, 도로 등 인프라 부분과 무역, 자원, 운송 부분 전 분야에서 해당 토지 사용권 혜택이 적용
    - \* 다만 연장 신청 세부 절차와 타당성 검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추후 세부 법안 발표 예정
- 금번 토지 사용권 혜택은 해외기업에 매우 보수적이던 인도네시아 정부의 파격적인 정책으로 평가되며, 정부는 이러한 토지 사용권 혜택 제공이 복지, 경제, 도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출처 :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22.10.26)

## ■ [항만·물류, 독일] 독일 정부, 함부르크 컨테이너 항만에 中 국영 해운사 지분 투자 승인

- 독일 솔츠 총리가 이끄는 사민당 각료들이 주축인 독일 내각은 최대 항구도시 함부르크 항만의 컨테이너 운영사 HHLA가 소유한 3개 터미널 중 하나인 툴러오르트 터미널에 중국 국영해운사 중국원양해운(COSCO)의 지분 24.9% 투자를 10.26일 승인했음
  - 함부르크 시장 출신인 솔츠 총리는 자국 항만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COSCO의 지분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 다만 당초 COSCO가 계획한 지분 35% 투자 대신 실제 투자 규모를 25% 미만으로 제한해 COSCO가 의결권을 획득하지는 못했으며, 독일 경제부와 자유민주당이 이끄는 4개 부처는 승인 거부 내용의 서한까지도 작성
  - 이 서한은 독일 및 유럽 운송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위험 발생이 우려되는 반면, 중국은 독일의 인프라 투자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또한 위기 발생시 중국이 이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비판
  - 현지 경제매체 한델스블라트 따르면 EU 집행위 또한 지난 봄 함부르크 항만에 대한 COSCO의 지분 참여를 허용하지 말 것을 경고
-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당사자들은 중국과 독일 사이의 실용적 협력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근거없이 과장하는 것을 멈추기를 바란다”라며 독일내 반대 여론에 반발, 솔츠 총리는 11월초 경제 사절단과 중국을 방문할 예정

출처: 연합뉴스(22.10.26), 뉴스원(22.10.27) 등 언론보도 KOTRA 함부르크무역관 종합

## GVC 뉴스 더하기 ① : 美 백악관, 배터리 제조 및 산업 지원 계획 발표

◆ 美 백악관은 미국 배터리 제조와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담은 팩트시트를 10.19일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자

### ■ 배터리 제조 보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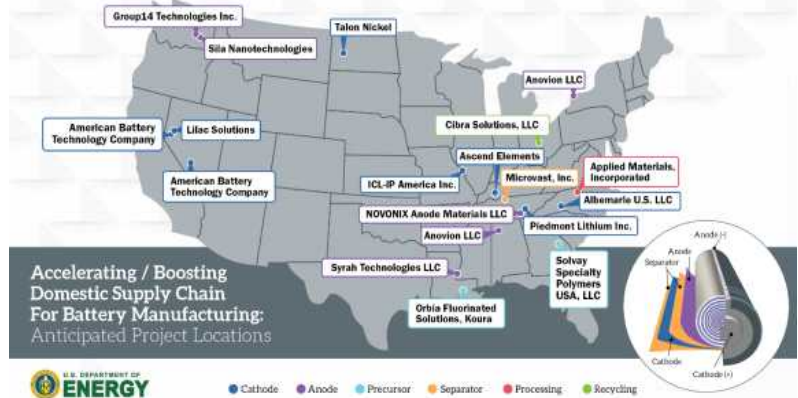
- 초당적 인프라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기반, 아래 프로젝트 관련 28억 달러 보조금 수여 대상 20개 배터리 제조 및 프로세싱 업체 발표

- 연간 약 200만대의 전기차에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급 리튬 개발
- 연간 약 120만대의 전기차에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급 흑연 개발
- 연간 약 40만대의 전기차에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급 니켈 생산
- 미국 최초 대규모 상업용 리튬 전해질염 (LiPF6) 생산 시설 설치

- 2030년 전기차 배터리용 바인더에 대한 미국내 수요의 45% 대응 가능한 전극 바인더 설비 개발
- 연간 약 60만개 전기차 배터리에 음극재를 공급하기 위한 미국내 최초의 상업용 규모의 산화규소 생산시설 구축
- 미국 최초 인산철리튬 양극 시설 설치

-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자체 투자까지 포함해 90억 달러(약 13조원)가 EV 배터리 원료 개발·생산에 투입될 예정으로, 미국내 전기차와 전력 그리드 생산 확대를 위한 배터리 생산 증가 및 공급망 안정화를 통하여 미국 제조산업 전반의 성장이 기대됨

〈 보조금 수여 대상 기업별 프로젝트 수행 예상 지역 〉



출처: 미국 에너지부

〈보조금 수혜 기업 리스트〉

공급망 단계	기업명	연방 정부 비용 부담	수혜 기업 비용 부담
재료 분리 및 가공 단계	Albemarle U.S. Inc. / American Battery Technology Company / Anovion LLC / Ascend Elements / Koura, part of Orbia Fluorinated Solutions,(formerly Mexichem Fluor, Incorporated) / Lilac Solutions / NOVONIX Anode Materials LLC / Piedmont Lithium Inc. / Solvay Specialty Polymers USA, LLC / Syrah Technologies LLC / Talon Nickel (USA) LLC	16억 달러	34억 달러
부품 제조 단계	6k Inc / Amprius / Applied Materials, Incorporated / Ascend Elements, Inc. / Membrane Holdings LLC - ENTEK / Group14 Technologies Inc. / ICL-IP America Inc. / Microvast / Sila Nanotechnologies	12억 달러	28억 달러
재활용 단계	Cirba Solutions	7,500만 달러	1억8백만 달러

출처: 백악관 팩트시트(10.19)

### ■ 배터리 핵심 광물 이니셔티브

- 미국은 첨단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광물 및 재료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핵심 광물 전략 구현, △핵심광물 공급망 및 지역사회 산업 조정, △연구 지원, △친환경 광물 채굴 및 재활용 지원을 위한 보조금 및 대출, △외교적 노력 지원, △노동조합과 연방의 참여 및 △동맹국과의 깊고 지속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발전 등 실천

- 동 이니셔티브는 백악관 운영위원회가 주도하고 국무부의 지원을 받아 에너지부가 조정





## GVC 뉴스 더하기 ② : 중국의 對美 희토류 수출규제 가능성과 미국 공급망 현황

◆ 최근 미국의 對中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 강화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논의 배경과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현황 및 주요 대책에 대해 살펴보자

### ■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가능성 제시 배경

-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 타임스는 10.9일 기사에서 미국 국방 부문에서의 높은 중국 희토류 의존도에 주목하며, 희토류 수출규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
  - 지난 9월 美 국방부는 F-35 전투기 엔진에 사용된 희토류(코발트-사마리움 합금)가 미국산 조달 규정을 위반했다며 인수를 중단했으나, 면제를 허용해 10.8일부터 인수를 재개하고 향후 미국산으로 대체를 요구한 바 있음
- 중국이 글로벌 희토류 산업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희토류를 무기화할 경우 미국의 핵심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여 美 정·재계 등 우려 심화

※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란? 원소 주기율표상 17개 화학 원소를 통칭, 란타넘(La)부터 루테튬(Lu)까지의 란타넘 계열 15개 원소에 더해 스칸듐(Sc)과 이트륨(Y)을 포괄하는 광물로, 최근 전자, 친환경, 국방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수요 급증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9호, 10호 참고

- 희토류는 △영구자석(휴대전화, 풍력터빈, 전기차 모터), △촉매제(원유정제, 자동차), △광섬유(증폭기, 레이저), △광·디스플레이(형광등, 휴대전화 스크린, 컴퓨터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

〈 주요국 희토류 생산 및 매장량 현황 (단위: 메트릭 톤) 〉 (자료) 미국지질조사국(USGS)

국가	생산량				매장량 (2021년 기준)
	2018	2019	2020	2021	
중국	120,000	132,000	140,000	168,000	44,000,000
미국	18,000	28,000	39,000	43,000	1,800,000
미얀마	19,000	25,000	31,000	26,000	NA
호주	21,000	20,000	21,000	22,000	4,000,000
태국	1,000	1,900	3,600	8,000	NA
러시아	2,700	2,700	2,700	2,700	21,000,000
브라질	1,100	710	600	500	21,000,000
베트남	1,000	1,300	700	400	22,000,000
전 세계	190,000	220,000	240,000	280,000	120,000,000

### ■ 미국 희토류 공급망 현황 및 자급 대책

- (생산·수입) '10~'14년 중국발 희토류 공급 충격으로 미국은 '18년부터 본격적으로 희토류 정광(Concentrate) 생산을 재개하고 증산 추진중이나, 자국 소비 희토류 금속·화합물은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
  - '21년 미국 희토류 금속·화합물 수입은 총 1억 6,000만 달러로 전년 1억 900만 달러에서 급증.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78%를 차지하며, 에스토니아 6%, 말레이시아 5%, 일본 4%, 기타 국가 7% 順
- (자급 대책) ①연방 부처(국방부, 에너지) 주도로 희귀광물 생산역량 강화, ②'광물안보 파트너십(MSP)' [한국·호주 등 10개국 및 EU집행위]을 통한 국제 공급망 안정 도모, ③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공동 해외 프로젝트 금융·투자 지원 및 ④연방의회, 對中 희토류 의존 종식을 위한 법안\* 검토 중
  - \* 美 상원에 '필수 에너지·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Restoring Essential Energy and Security Holdings Onshore for Rare Earths, REEShore Act)' 계류 중. 동 법안은 △희토류 전략비축 제도화, △원산지공개 의무화, △국방 분야에서 중국산 희토류 사용금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등을 골자로 함

### ■ 중국 희토류 무기화 동향

- '21년말 중국 정부는 중국 3대 희토류 생산기업의 합병을 승인하는 등 희토류 산업 장악력 강화
  - 신설된 국영기업 '중국희토그룹'은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기업으로 중국 내 희토류 생산 쿼터의 70% 담당, 10월 중순에는 희토류 광산개발업체인 '장동그룹'과 전략적 협력 협약을 체결, 희토류 자원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음
- '21.1.15일에는 중국 산업정보기술부가 희토류 관리 잠정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중국의 지정학적 전략으로 희토류 수출통제 활용 가능성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
  - \* △희토류 산업 관리 규칙, △외국인 투자 규제, △수출 통제, △국가 전략 비축 관리 체계, △정보 추적 시스템 등

## GVC 기초상식: 인코텀즈(INCOTERMS) 2편 - 세부 내용

◆ 지금의 튀니지 지역에 있던 도시국가 카르타고와 이탈리아 나폴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새로운 도시'라는 점이다. 이번 편에서는 무역업계의 '새로운' 규칙, 인코텀즈 2020의 세부사항을 살펴보자.

〈인코텀즈 기초상식 시리즈〉

33호: 인코텀즈의 해석
34호: 인코텀즈 세부 내용
35호: 실무 팁과 사례(예정)

### ■ 「인코텀즈 2020」 주요 항목별 정리

- 『인코텀즈 2020』은 11개의 조건에 대해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운송계약자', '보험계약자', '통관담당자', '수출/수입자'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항목, '납품의무 이행지' 등 수출·수입자의 역할을 다루고 있음

〈인코텀즈 2020〉의 11개 조건		〈인코텀즈 2020〉에서 다루는 10개 항목		
영문명칭	국문명칭	조항	영문	국문
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	제1항	General Obligations	일반의무
FCA(free carrier)	운송인도조건	제2항	Delivery/Taking delivery	인도/인도의 수령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포함인도조건	제3항	Transfer of risks	위험의 이전
CIP(carriage &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제4항	Carriage	운송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조건	제5항	Insurance	보험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조건	제6항	Delivery/Transport Document	인도/운송서류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제7항	Export/Import clearance	수출/수입통관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제8항	Checking/Packing/Marking	점검/포장/하인표시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제9항	Allocation of costs	비용분담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제10항	Notices	통지
CIF(cost, insurance &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 운송계약 체결자

- E, F group에 속한 조건들 : **수입자가 운송계약 체결자**
  - 수입자가 운임 지급자이므로, 운임 미포함하여 수출단가 계산
  - 수입자가 운임 지급자이므로, 운임 후지급(freight collect)
- C, D group에 속한 조건들 : **수출자가 운송계약 체결자**
  - 수출자가 운임 지급자이므로, 운임 포함하여 수출단가 계산
  - 수출자가 운임 지급자이므로, 운임 선지급(freight prepaid)

그룹	조건	운송계약 체결자
E	EXW	수입자
	FCA	
	FAS	
	FOB	
C	CPT	수출자
	CIP	
	CFR	
	CIF	
D	DAP	수출자
	DPU	
	DDP	

### ■ 보험계약 체결자

- CIF, CIP 조건 : **수출자가 수입자를 위해 보험가입(의무사항)**
  - 수출자가 보험료 지급자이므로 보험료를 포함하여 수출단가 계산
- DAP, DPU, DDP 조건 : **수출자가 자신을 위해 보험가입 가능**
- EXW, FCA, FAS, FOB, CFR, CPT 조건 : **수입자가 자신을 위해 보험가입 가능**

그룹	조건	보험계약 체결자
C	CIF	수출자(의무)
	CIP	
	CFR	
E	EXW	수입자(선택)
	FCA	
	FAS	
F	FOB	수입자(선택)
	DAP	
	DPU	
D	DDP	수출자(선택)

■ 수출입통관 진행자

- EXW 조건 : 수입자가 수출통관 & 수입통관 모두 담당
- DDP 조건 : 수출자가 수출통관 & 수입통관 모두 담당
- 그 외 조건 : 수출통관은 수출자,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담당

■ 조건에 따라 선택가능한 운송수단

- 선박 전용(해상운송 전용조건) : FAS, FOB, CFR, CIF 조건
- 모든 운송수단 이용가능조건 : EXW, FCA, CPT, CIP, DAP, DPU, DDP 조건

■ 조건별 사용방법 및 수출·수입계약 여부

- E, F group에 속한 조건들 : **출발지**를 기재하여 사용
  - \* 예) FOB 부산항 : 부산항이 출발항(수출항)이라는 의미. 따라서, 수출계약에 해당
- C, D group에 속한 조건들 : **도착지**를 기재하여 사용
  - \* 예) CIF 부산항 : 부산항이 도착항(수입항)이라는 의미. 따라서, 수입계약에 해당

그룹	조건	사용방법
E	EXW	출발지 기재 → 수출계약
	FCA	
	FAS	
F	FOB	출발지 기재 → 수출계약
	CPT	
	CIP	
C	CFR	도착지 기재 → 수입계약
	CIF	
	DAP	
D	DPU	도착지 기재 → 수입계약
	DDP	

■ 조건별 납품의무 이행장소

- **E, F, C group** 조건들 : 출발지에서 수출자의 납품의무 이행된 것으로 해석
  - 따라서, 출발지에서 **[출발한 수량 = 납품수량 = 결제수량]**이라는 등식 성립
  - '수입자가 운송 중 위험을 부담한다', '수입자가 위험부담자' 등과 같이 표현함
    - \* 예) FOB 부산항 : 부산항이 납품의무 이행지이므로, 부산항 출발수량(100개)이 납품 수량
      - 이후 수입항에 도착된 수량에 관계없이 100개에 대해 대금 청구가능
- **D group** 조건들 : 도착지에서 수출자의 납품의무 이행된 것으로 해석
  - 따라서, 도착지에 **[도착한 수량 = 납품수량 = 결제수량]**이라는 등식 성립
  - '수출자가 운송 중 위험을 부담한다', '수출자가 위험부담자' 등과 같이 표현함
    - \* 예) CIF L.A.항 : L.A.항이 납품의무 이행지이므로, L.A.항 도착수량(70개)이 납품 수량임
      - 수출항에서 선적된 수량(100개)에 관계없이 70개에 대해서만 대금 청구가능

그룹	조건	납품의무 이행장소
C	CIF	출발지 (출발수량 기준)
	CIP	
	CFR	
	CPT	
E	EXW	출발지 (출발수량 기준)
	FCA	
	FAS	
F	FOB	출발지 (출발수량 기준)
	DAP	
	DPU	
D	DDP	도착지 (도착수량 기준)

■ 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 2020」 조건

<b>EXW</b> 공장인도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자의 영업장에서 물품을 수입자(또는 수입자가 선택한 운송인)에게 납품하는 조건</li> <li>• 운송/보험계약 체결자 : 수입자</li> </ul>	
<b>FOB</b> 본선인도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항에서 수입자가 예약한 선박에 적재(또는 이미 선적된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조건</li> <li>• 운송/보험계약 체결자 : 수입자</li> <li>• 수출가격 구성항목 : 공장인도(EXW)가격 + 수출항까지의 내륙수송비 + 선적비</li> </ul>	
<b>CIF</b> 운임보험료 포함인도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항에서 수출자가 예약한 선박에 적재(또는 이미 선적된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조건</li> <li>• 운송/보험계약 체결자 : 수출자</li> <li>• 수출가격 구성항목 : 본선인도(FOB)가격 + 국제운송비 + 보험료</li> </ul>	

자료: ICC 자료 번역 및 수정



## GVC 돋보기 : 라-우 전쟁發 글로벌 LNG 시장 공급망 변화 동향

◆ 천연가스 수입의 脫러시아를 추진하는 유럽이 국제 LNG시장에 뛰어 들었다. 제한된 글로벌 LNG 공급능력 하에서 전통적 수입국이던 아태지역 국가들의 LNG 물량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구매력이 약한 국가에서는 전력공급 중단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글로벌 LNG 시장 동향을 살펴보자

### ■ EU의 러시아產 천연가스 대체를 위한 LNG 수입 확대

- (배경) 유럽의회(European Commission)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유럽의 對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평년의 1/3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전략 발표(REPowerEU, '22.3.8)

- (단기목표) '22년 말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 감축목표의 약 50%를 LNG 수입 확대로 대체
- 러시아도 非우호국에 대한 가스공급 중단조치를 확대함에 따라 러시아의 EU 가스공급량은 평년대비 약 20% 수준으로 감소(22.10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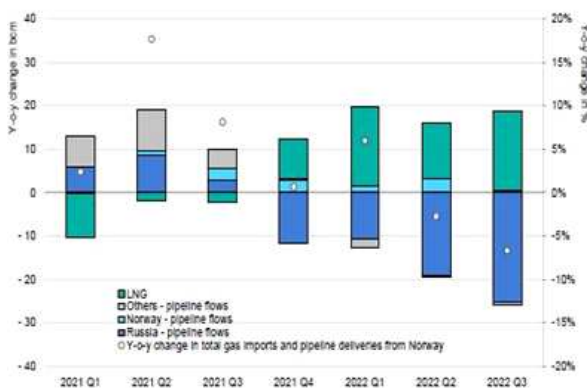
〈REPowerEU 주요 전략('22년 목표)〉

러시아산 천연가스 감축 방안	가스 대체 목표량
▶ 非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선 확대	▶ 50Bcm(LNG:액화천연가스), 10Bcm(PNG:파이프라인 가스)
▶ 에너지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	▶ 41.5Bcm(Billion cubic meter, 십억입방미터)
▶ 총 대체 목표량	▶ 101.5Bcm

- (동향) EU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외 지역으로부터의 LNG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동절기를 대비한 역내 천연가스 비축 목표를 초과 달성

- REPowerEU는 10월말까지 80% 재고 확충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22.10월말 기준 94% 달성
- '22.1~8월, 국제 LNG 총 무역규모는 전년대비 6% 증가했으나, EU의 LNG 수입은 약 65% 증가(약 35Bcm↑)

〈EU 가스수입원 변화(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IEA(2022.10)

〈세계 LNG 시장에서의 유럽 비중('22)〉



자료: IHS Markit DB

### ■ 아태지역 LNG 수급 동향

- ▶ EU의 LNG 수입 수요 급증은 글로벌 LNG 시장의 구매 경쟁을 심화시켜 현물가격 급등 유발
- ▶ PNG 공급라인 미비로 LNG 수입에 의존하던 아태지역 국가들의 수입 여력이 크게 감소.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국가별 경제상황과 기존 LNG 수입계약의 형태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일본) LNG 도입계약에서 유가에 연동된 장기계약의 비중이 높고 구매력도 높아 LNG 현물가격 급등의 내수 충격의 정도는 비교적 낮은 상황이나, 중기적으로 LNG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원전 재가동 계획 발표

-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 추진에 따른 에너지 수요 감소로 '22년 1~8월의 중국의 가스 수요는 전년대비 10%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LNG 수입은 전년 대비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세계 1위 LNG 수입국이던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는 아태지역 LNG 현물시장의 경쟁 격화를 다소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인도) 급등하는 LNG 수입 수요 최소화를 위해 '22년 1~8월 가스화력 발전량을 30% 감소시키고 이를 석탄화력으로 대체
- (태국) '22년 1~7월 국내 가스소비가 전년대비 12% 감소했으며, 경유 발전량이 16배 증가
- (파키스탄) 급등한 LNG 현물의 조달 여력 미비로 '22년 1~8월 LNG 수입량은 전년대비 약 20% 감소하였으며 순환정전(rolling blackout), 상업시설 제한운영, 공무원 주5일 근무제 실시 등 에너지 공급 감소에 대응
- (방글라데시) 외환위기(balance of payment crisis) 우려로 7월 이후 LNG 수입을 중단함에 따라 '22. 10월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광범위한 정전 사태 발생

#### 〈국제 LNG가격 급등에 따른 아시아 주요 수입국의 영향〉

국가	영향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1~8월 전력부문 가스 소비량 전년 대비 28% 감소 (일부 석탄으로 대체)</li> <li>• 정유·화학 부문의 가스 소비량 각각 29%, 23% 감소했으며 감소분의 대부분은 원유로 대체</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1~8월 전력부문 가스 사용량 전년 대비 9% 감소</li> <li>• 산업 및 수송 분야 수요 급감</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 중반부터 원자로 7기 재가동 추진</li> <li>• LNG 공급 차단 시나리오에 대한 비상 대책 마련</li> </ul>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1~7월, 전력부문 가스 소비 6% 감소, 경유 발전량 16배 증가</li> <li>• 높은 가격으로 인해 구매 입찰 취소 또는 낙찰자 미선정</li> </ul>
파키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전반에 걸친 심각한 에너지 위기, 최대 12시간 순환 정전</li> <li>• '22.1~8월 LNG 수입 19% 감소</li> <li>• 최소 수준의 LNG 현물구매로 인한 석유 화력발전 5배 증가</li> </ul>
방글라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7~8월 LNG 현물구매 중단</li> <li>• 7월 중순 최대 20% 부하 차단 및 의무 절전조치 실시</li> </ul>

자료: IEA(2022.10), Gas Market Report Q4 2022, 에경연('22.10)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22-20) 재인용

#### ■ 글로벌 LNG 시장 재편

- (LNG 프리미엄 시장 전환) 기존 PNG 대비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LNG의 특성상 프리미엄 시장은 주요 구매처인 아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유럽이 새로운 프리미엄 시장으로 급부상
- (계약형태의 변화) 국제 LNG 시장이 판매자 우위시장(Buyer's Market)으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신규 LNG 거래는 계약기간이 더욱 장기화되고 그간 완화되던 도착지 제한조항 삽입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

#### ■ 향후 전망

- 금년 동절기 이후에도 EU의 천연가스 수입 관련 脫러시아 정책은 지속될 계획으로 아시아 지역의 LNG 가격 급등 및 공급망 교란의 주기도 더욱 잦아질 전망
- 특히 EU는 제한된 LNG 수입 인프라 역량을 빠르게 확충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단기에 임대 가능한 FSRU (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 12개 既 확보, 추가로 9개 FSRU 신규 프로젝트 계획 발표
  - 그러나 EU가 확보한 FSRU 설비는 남아시아 및 동남아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건조된 설비로서 아태 지역의 LNG 수입 능력 약화를 초래할 전망

## GVC 전문가: “교역의 무기화” -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 국가들이 각자의 비교우위에 기반하여 특화함으로써 이익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무역, 무역은 어쩌다가 21세기 경제 전쟁의 수단이 되었을까?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뉴욕시립대 교수인 폴 크루그먼이 뉴욕타임즈에 게재한 기고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자.

### 배경

#### ■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무역은 평화에 기여한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부상

- 세계화는 보호무역주의 철폐와 관세 축소를 통한 자유무역이 세계 평화를 촉진한다는 주장에서 출발하였음
- 독일은 세계 경제통합이 민주화와 법치를 장려한다는 ‘무역을 통한 변화’ 정책을 바탕으로 러시아, 중국과도 경제협력을 추구하고자 노력

#### ■ 그러나 일부 국가가 정치적으로 역행하며,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weaponized interdependence)’가 이루어지기 시작

- 러시아, 중국 등의 국가는 1인 통치체제로 회귀하였으며, 자국의 공급망 내 위치를 악용하여 他 국가에 피해를 입히는 ‘나쁜 행위자’가 됨

#### ■ 다만, ‘선한 행위자’들이 상호의존성을 통해 나쁜 행위자를 억제할 수도 있기에, 세계 경제에서 상호 의존성의 중요성이 증대됨

〈폴 크루그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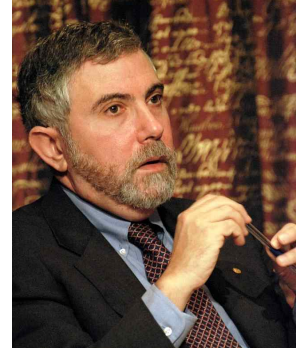


사진: 서울경제

### 현황

#### ■ 세계화는 이제 각국의 연계성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국제 대립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였음

- 국가들이 자국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 경제력을 행사하던 기존의 무역전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대신, 현대 경제에서 경제 권력은 다른 국가의 핵심 상품·서비스·금융·정보 접근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능력에서 발생

• 미국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 권력을 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

#### ■ 이에 미국은 상호의존성을 통해 얻은 경제 권력을 통해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고자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음

- 미국은 △화웨이社 제재(20.5.15), △對中 첨단기술 수출통제 발표(22.10.14) 등 첨단 반도체 관련 對中 제재를 강화하는 기조 유지 중
- 또한, 美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핵심 산업용품과 자본재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을 차단하여 성공을 거두었음

• 해당 사례가 바이든 행정부의 세계화·국가안보 정책기조 형성에 일조한 것으로 보임

#### ■ 미국은 세계화 역행 노선을 취하는 이유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무역 자유화에 따른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공급망 약화 및 의존도 심화 리스크가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시사점

◆ 우리나라는 새로운 의미의 ‘세계화’에 따라 어떠한 구도로 국제 무역구조와 공급망이 개편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전략적 위치를 선정해야 할 것임

참고 서울경제, “[해외 칼럼] 교역의 무기화” (원문: 뉴욕타임즈) 작성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더 알아보기 :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기술혁신전략

- ◆ 지난 10월 26일, 공동위원장(한덕수 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과 21개 중앙행정기관, 민간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여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논의·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 ※ 보도자료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http://www.motie.go.kr)) → 알림·뉴스 → 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

### ■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 전략

- (정책방향)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과의 충실한 소통과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과 지방 주도로 탄소중립 실현
- 특히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 근거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시 이행관리시스템 및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을 밝힘

#### 〈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방향 〉

기존 (AS-IS)	개선 (TO-BE)
거시 목표	<b>단계별 목표</b>
실행방안 미흡	<b>실행방안 구체화</b>
정부주도 Top-down	<b>민간·지자체와 함께 소통강화</b>
원전 배제, 비현실적 에너지 정책	<b>원전+재생e 균형잡힌 에너지믹스</b>
형식적 이행점검	<b>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 점검체계 구축</b>
부처 산발적 인허가	<b>범부처 통합지원체계 구축</b>

### - 주요 내용

#### ①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실현

- (원전+재생e 조화) 원전·신재생e의 조화로운 활용, 무탄소 新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 (산업구조 전환) 세제금융지원 등 산업공정 전환 지원, 순환경제 활성화로 산업공정 초과정 탄소중립 실현
- (국토의 저탄소화) 건물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무공해차 보급, 농축수산업 전환, 탄소흡수원 확충

#### ② 민관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

- (기술혁신·규제개선) 기후기술 기본계획 수립, R&D 기획상용화 초과정 통합관리, 불합리한 규제 개선
- (핵심산업 육성) 원전 생태계 복원, 무공해차·재생e·수소·CCUS 등 핵심산업 육성 및 미래시장 창출
- (재정지원·투자확대) 기후대응기금 지원,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K-택소노미에 따른 민간투자 활성화

#### ③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감하고 협력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문화 형성

- (에너지 소비절감)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ICT 활용 에너지 수요 효율화, 국민 실천문화 확산
- (지방중심 탄소중립)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 수립, 중앙-지방정부 정례회의체 운영
- (산업·일자리 전환) 빅데이터 활용 조기경보체계 구축, 직무훈련·창업 등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

#### ④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체계 구축

- (기후적응기반 구축) 기후위험 예측력 강화, 선제적 기후재난 대응 인프라 확대, 기후적응형 기술개발
- (국제사회 선도) 미국·EU 등 주요국과 기후대응 연대 강화, 그린ODA·국제감축사업 등 국제사회 선도
- (이행관리) 객관적 성과관리 시스템 마련, 상시 이행관리 및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

- (추진방향)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정확히 타겟팅하고 현장까지 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R&D 범부처 전주기 체계'를 마련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둠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방향 〉

기존 (AS-IS)	개선 (TO-BE)
기술의 임무 모호 / 정부 주도	<b>임무 중심의 기술 선정 / 민간 주도</b>
경직적인 R&D 운영 시스템 (부처별 예산 배분, 예타 기간 장기화 등)	<b>신속 유연한 탄소중립 R&amp;D 시스템</b> (분야별 예산 배분, 예타 Fast track, 국제협력)
단일 부처 중심의 기술개발 추진 체계	<b>기술 실현(실증·사업화)까지 고려한 범부처 협업 지원 체계 강화</b>

- 주요 내용

- ① 민간이 주도하는 임무중심 기반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체계 구축
  -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및 집중 육성 (아래 참조)
  - (임무중심 기반의 기술혁신 로드맵) 산업가치사슬을 고려하는 임무 중심 기반의 기술 혁신 로드맵 마련
  - (민관협업 시스템) 분야별 민간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산학연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민간수요 반영 강화
- ② 탄소중립 분야에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투자 시스템 적용
  - (탄소중립 핵심기술 투자) 범부처 통합형 R&D 예산 배분 조정체계 도입
  - (예비타당성 신속화) 신속 유연한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및 맞춤형 프로젝트 추진
    - ▶ (기획단계) 예비타당성 총 조사기간을 기존 7개월 → 4.5개월로 단축  
\* 탄소중립국가전략기술 분야 총사업비 3,000억원 사업기간 5년 이하의 사업을 대상으로 예타 총괄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
    - ▶ (수행단계)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예타 통과 이후에도 특정평가를 거쳐 사업계획 변경 허용
  - (전략적 국제협력) 선도국 등과 협력하여 글로벌 기술 선도를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전략' 마련
- ③ 혁신적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지원 강화
  - (신속한 사업화) 그린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등 혁신기술의 신속한 사업화 및 창업 촉진
  - (데이터 기반 탄소배출 모니터링) 신뢰성 있는 탄소배출 측정·검증 모델 개발
  - (선제적 규제개선 조치) 탄소중립 R&D와 연계한 선제적 제도·규제 개선
  -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공동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
  - (범부처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체계 강화) 범부처 탄소중립 R&D 컨트롤타워 강화

〈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

에너지 전환	 <p>(국내여건 : 좁은 국토면적, 에너지 안보 등) ▶ <b>사용처 다변화 태양광, SMR 등 29개 내외</b></p>	산업	 <p>(국내여건 : 고탄소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 <b>친환경 연·원료 대체, CCUS 등 48개 내외</b></p>
건물·환경	 <p>(국내여건 : 고층형 건물 / 폐기물 발생량 증가) ▶ <b>건물 에너지 효율화, 폐기물 저감 소재 등 14개</b></p>	수송	 <p>(국내여건 :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및 선박) ▶ <b>차세대 전지, 구동기 효율화 등 9개 내외</b></p>



**GVC 소식통 ① : 2022년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3기 선정계획 공고**

※ 세부 사항은 선정계획 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783호) 참조

**■ 사업 개요**

- (목적) 경쟁력있는 국내기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문기업으로 육성
- (선정규모) 3기 소부장 으뜸기업 20개社 내외 선정 예정(1기 22개社, 2기 21개社 선정完, 지원 중)
- (지원내용) 지정기간 동안 5가지 항목(R&D, 실증지원, 용자, 펀드, 규제특례)을 범부처 협업 패키지로 지원

항목	지원내용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율방식의 기술개발 우선지원(최대 50억원*/년 이내) 및 민간부담금 완화</li> <li>* 지원 한도치이며, 사업규모·기술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 출연금 규모 조정 예정</li> <li>* (참고) 으뜸기업 포함 컨소시엄별 정부출연금 지원내역(변동가능) : (1기) 평균 113.7억/3.5년 (2기) 평균 87.5억/3.4년</li> </ul>
실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요기업과의 양산 테스트 지원, 공공기관의 339개 현장 Test-bed 개방 등</li> </ul>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자금 등 중소·중견 설비투자 자금 대출 우선지원</li> </ul>
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부장 성장지원펀드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M&amp;A, 설비투자 우선지원</li> </ul>
규제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 하이패스 제도' 도입하여 신속·일원화된 규제 서비스 지원</li> <li>* 수급대응센터가 규제애로 접수 → 15일 내 개선 여부 회신 → 제도 개선</li> </ul>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한) ① 핵심전략기술 확인 : 2022.10.25(화) ~ 11.9(수) 18:00까지 / 21일간  
② 으뜸기업 신청 : 2022.10.25(화) ~ 12.9(금) 18:00까지 / 46일간
- (신청요건) 소재·부품·장비 150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에 연구 및 생산 기반을 갖춘 대·중견·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2. 아래에 제시된 4개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 ①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3% 이상)
- ②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등록 5건 이상)
- ③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4인 이상)
- ④ 전문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유치 실적(3억원 이상)

- (신청양식) 소부장넷 홈페이지(<http://www.sobujang.net>)에서 상시 다운로드 가능

**① 핵심전략기술확인 신청**

▶ 다운로드 경로 : 소부장넷 홈페이지 - 소부장 기업·기술 - 핵심전략기술확인 신청

**② 으뜸기업 신청**

▶ 다운로드 경로 : 소부장넷 홈페이지 - 소부장 기업·기술 - 으뜸기업 신청

**■ 문의처**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으뜸기업 선정관련 신청서 작성 및 전산접수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 시장협력팀	☎ 053-718-**** (8437, 8449)
핵심전략기술 확인 관련 문의	산기평 전략기술팀	☎ 053-718-**** (8421, 8451, 8460, 8428, 8446)
공고 및 접수관련 일반사항	산기평 R&D 콜센터	1544-6633

## GVC 소식통 ② :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 [KOTRA]

#### ■ [항공운송] 프랑크푸르트(독일), 도쿄(일본) 수출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사업 (KOTRA·대한항공)

- (사업개요) 항공운송 부족 애로 지속 → 수출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위한 항공기 수출 스페이스 운송 증편(~2212월)  
 < 항공 - 항차 정보 >

노선	출발예정일(매주)	예약마감일	서류/화물(입고)마감
인천(ICN) → 독일(FRA)	수요일	화요일 12:00	화요일 16:00 이전
	일요일	금요일 12:00	금요일 16:00 이전
인천(ICN) → 도쿄(NRT)	화요일	월요일 12:00	월요일 15:00 이전
	금요일	목요일 12:00	목요일 15:00 이전

- (상세내용) [KOTRA-대한항공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일반 화물 대상(냉장·냉동·위험물 등 특수화물 진행 불가)/ 전용 스페이스: 편당 3톤 내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 항공물류수행사 ☎ 02-310-6554

#### ■ [해상운송]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박 운송 지원 안내 (KOTRA·삼성SDS·CJ대한통운)

- (사업내용) 선복부족 애로사항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기업이 기 확보한 정기선복의 일부를 국내 중소기업에게 제공하여 적기 수출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및 KOTRA 회원사
- (신청기간) 추후 공시 시까지 수시 접수(접수 물량 초과될 경우 선착순 마감)
- (서비스 노선) 출항: 부산항 / 도착: 하단 참조

#### < 해상 - 출항 정보 >

운송지원사	구분	가용선복(TEU/Week)	주요기항지
CJ대한통운	일본	10	도쿄, 나고야, 오사카, 고베
	동호주	5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북미 서안	3	(서안) 엘에이, 롱비치, 시애틀, 타코마
	북미 동안	2	(동안) 뉴욕, 사바나, 노퍽
	중남미 서안	3	(서안) 만자날로
	중남미 동안	2	(동안) 산토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타자이, 몬테비데오
	유럽	15	안트워프, 로테르담, 함부르크, 사우스햄튼, 그디니아, 르하브르
	서지중해	5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제노아
	동지중해	5	이스탄불, 이즈미트
	아프리카	5	더반, 뭄바사 ▶서아프리카 제외
삼성 SDS	중동	7	제벨알리, 담만, 소하르
	서남아	8	나바세바, 첸나이, 카투팔리 ▶방글라데시 제외
	북미 서안	40	LA, 롱비치, 오클랜드, 시애틀, 밴쿠버
	북미 동안	10	뉴욕, 사바나
	북유럽	20	로테르담, 함부르크, 앤트워프
	지중해	10	제노아,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포스
	남미 동안	20	산토스, 이타자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아시아	20	호치민, 방콕, 람차방, 포트켈랑, 하이퐁(추가)	

- (상세내용)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 또는 [삼성SDS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① CJ대한통운: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② 삼성SDS: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 물류 지원사업>

기업명	지원 내용	신청 방법												
<b>[해상운송]</b>														
 (포스코)	<b>[중소기업 화물 합적·운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 벌크화물 수출 중소기업(철강제품) or 포워더</li> <li>가능품목: 코일·판재류·선재 등 (이외 품목은 추가 확인 필요)</li> <li>출항지: 포항항/광양항 → 도착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 (내륙운임은 수출기업 부담)</li> </ul>	포스코 수출물류 합적 플랫폼 가입 후 합적 신청 <a href="#">사업안내 (클릭)</a>												
	<b>[자동차운반선(RORO) 활용 중소기업 화물 합적·운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 Breakbulk 화물 수출 중소기업 or 포워더</li> <li>출항지: 광양항/마산항/평택항 → 도착지: 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                      ※ 운송신청 화물에 대한 현대글로벌로비스의 추가 확인 후 합적·운송 실시                      ※ 신청 화물에 대한 선적 확정 시, 출항·선적일정 개별 공지</li> </ul>	신청서 작성/제출 (logistics01@kita.or.kr) <a href="#">사업안내 (클릭)</a>												
 (SM상선)	<b>[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박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 한국발 미주 수출 물량이 있는 중소기업(실화주) (포워더 신청불가)</li> <li>출항지: 부산항 → 도착지: 미국 롱비치항                      ※ 12월 항차 일정 업데이트 예정이며, 각 항차별로 신청서 작성 필요</li> </ul>	신청서 작성/제출 (hjo117@kita.net) <a href="#">사업안내 (클릭)</a>												
	<b>[인트라 아시아 중소화주 수출선박 제공 우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 선적 희망일로부터 22일 이상 여유있는 수출 중소기업 (포워더 신청불가)</li> <li>가능품목: 일반 FCL 컨테이너화물 (LCL 불가)</li> <li>출항지: 부산항 → 도착지: 인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li> </ul>	사업안내에서 희망 국가 클릭 후 사업신청 <a href="#">사업안내 (클릭)</a>												
<b>[항공운송]</b>														
 (대한항공)	<b>[중소 수출기업 전용 스페이스 제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 수출 중소제조업체 (포워더 신청불가)</li> <li>가능품목: 일반 항공화물 (특수화물 불가)</li> </ul>	온라인 신청서 제출 <a href="#">사업안내(클릭)</a>												
	<table border="1"> <thead> <tr> <th>노선</th> <th>출항일</th> <th>예약 마감</th> <th>서류/화물 (입고)마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인천 → 로스앤젤레스</td> <td>수요일</td> <td>월요일 12:00</td> <td>화요일 12:00 이전</td> </tr> <tr> <td>일요일</td> <td>목요일 12:00</td> <td>금요일 12:00 이전</td> </tr> </tbody> </table>		노선	출항일	예약 마감	서류/화물 (입고)마감	인천 → 로스앤젤레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노선	출항일	예약 마감	서류/화물 (입고)마감											
인천 → 로스앤젤레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b>[복합운송]</b>														
 (LX판토스)	<b>[유럽·러시아항 해상·철도 복합운송 선복지원 및 운임할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12월 유럽·러시아항 추가 운임 할인</li> <li>지원대상: 국내 수출기업(실화주) (포워더 신청불가)</li> <li>가능품목: 20피트·4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LCL 불가, TCR은 40ft만 가능)</li> </ul>	(운임할인 및 지원사업) <a href="#">사업안내 (클릭)</a> (10~12월 추가 지원사업) <a href="#">사업안내 (클릭)</a>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해상+철도 복합운송</th> <th>내륙운송</th> </tr> <tr> <th>노선</th> <th>출발지</th> <th>도착지</th> <th>최종도착지</th> </tr> </thead> <tbody> <tr> <td>TCR</td> <td>인천, 평택</td> <td rowspan="2">폴란드 말라세비치</td> <td rowspan="2">유럽 전역</td> </tr> <tr> <td>TSR</td> <td>부산</td> </tr> </tbody> </table>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최종도착지	TCR	인천, 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유럽 전역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최종도착지											
TCR	인천, 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유럽 전역											
TSR	부산													
<b>[물류 보관]</b>														
 (칼트로지스)	<b>[부산신항 물류센터 컨테이너 화물 보관장소 제공 및 요금 할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내용: 물류센터 상하차 및 보관, 물류센터-CY터미널 셔틀 할인가 제공</li> <li>가능품목: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 대상 (특수 컨테이너 문의 필요)                      ※ 수출업체→물류센터 운송 불포함 (수출업체가 포워더/운송사 통해 직접수배)</li> </ul>	신청서 작성/제출 (hjo117@kita.net) <a href="#">사업안내 (클릭)</a>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 02-6000-7617 / 5754 (월-금 09:00-18:00)  
 ☐ logistics01@kita.or.kr / hjo117@kita.net



## GVC 소식통 ③ : 공급망 관련 지원사업 및 포럼, 상담회 안내

### ■ 2022년 제7차 해외지사화사업 참가기업 모집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고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서비스

단계	주요 지원 내용	기간	기업부담금	수행기관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 통관 자문, 출장 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 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6개월	220만 원	KOTRA
		1년	300~400만 원 (지역별 차등)	KOTRA 중진공 OKTA

- 신청기한 : 11월 11일(금) 限
- 참가신청 : [2022년 제7차 해외지사화사업 참가기업 모집\(클릭\)](#)에서 (첨부)공고문 내용 검토 후 신청하기 클릭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해외지사화사업에서 온라인 신청
- 참고사항 : 지원 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사업 단위별로 1개의 품목 신청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 선택하여 신청
- 문의처 : KOTRA 유망기업팀 조은비 대리 ☎ 02-3460-7441 / [enbi94@kotra.or.kr](mailto:enbi94@kotra.or.kr)  
KOTRA 유망기업팀 정지영 사원 ☎ 02-3460-7445 / [jiyoung@kotra.or.kr](mailto:jiyoung@kotra.or.kr)

### ■ 2022 MDB 프로젝트 플라자

- 포럼 및 상담회를 통해 MDB(다자개발은행) 재원을 활용하는 수송, 인프라 및 환경·에너지 분야 해외 프로젝트 접근성을 확보하고, 수주 잠재력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을 강화

- 일시/장소 : 11월 22일(화)~23일(수) /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 참가규모 : 해외 MDB 관계자 및 발주처 25개社, 국내기업 100여 개社
- 프로그램 (항목별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행사 안내 참고 요망)

날짜	시간	주요 내용
11월 22일(화)	10:00~11:55	MDB 전략 포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MDB의 전략)
	13:30~15:40	MDB 프로젝트 설명회
	16:00~17:50	해외 건설 세미나
11월 23일(수)		프로젝트 및 금융지원 상담회

- 신청기한 : 11월 15일(화) 限
- 참가신청 : [2022 MDB 프로젝트 플라자\(클릭\)](#) 내용 검토 후 신청하기 클릭 / MDB 홈페이지 연결
  - (상담회) 회원가입을 통해 기업정보 입력 후 마이페이지에서 상담 신청
  - (포럼 및 설명회) 참석자 정보 입력
- 문의처 : KOTRA 그린산업팀 임현정 대리 ☎ 02-3460-7493 / [hjlim1023@kotra.or.kr](mailto:hjlim1023@kotra.or.kr)

##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VC)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을 중심\*으로 '22.2.9일 출범 ⇨ 산업·통상·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상시전문적 분석 지원

\* 종합전략실(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분석실(무역협회), 공급망모니터링실(KOTRA) 등으로 구성(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가상의 조직)

- ① 정부 부처, KOTRA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에서 수집된 국내외 공급망 동향 심층 분석
- ② 글로벌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신속 파악, 전파 및 대응조치 등 제언
-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 지원

### ◆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

- 산업, 무역·통상,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협단체·연구기관 등 현장 중심의 민·관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를 개최(22.3.21)하여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개편 前(12개)	개편 後(29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
무역 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입협회 (4)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3)
연구 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

###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mailto: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매주 1회(목요일) 발간 中 (3.3일~)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로 메일 송부(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배포)
    -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카카오톡 > 오픈채팅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검색 > 프로필 설정 > 대화방 참여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mGL3Obe>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 필요 품목에 대한 문의·제안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 글로벌 경제지표('22. 11. 2. 수)

## [환율]

	'20.12.31	'21.12.31	'22.9.30	'22.10.28	'22.10.31	'22.11.1	전일비	21말비
₩/U\$	1,186.30	1,188.80	1,255.90	1,421.50	1,424.30	1,417.20	-0.50%	+19.21%
선물환(NDF,1월물)	1,186.30	1,190.00	1,256.20	1,421.50	1,424.90	1,417.00	-0.55%	+19.08%
₩/CNY	166.04	186.51	192.06	196.77	194.31	193.93	-0.20%	+3.98%
₩/Y100	1,051.19	1,032.48	964.30	970.64	963.19	958.47	-0.49%	-7.17%
Y/U\$	103.34	115.14	130.24	146.45	147.77	147.86	+0.06%	+28.42%
U\$/EUR	1.2279	1.1318	1.0544	0.9970	0.9941	0.9932	-0.09%	-12.25%
CNY/U\$	6.5305	6.3681	6.5975	7.2333	7.2800	7.2720	-0.11%	+14.19%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10.31 (전일)	'22.11.1	'22.11.1			
					전일(10.31比)	'21년최저比	'21년말比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90.64	91.44	▲0.8 +0.9%	▲41.4 +82.7%	▲14.3 +18.6%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79.50	80.15	▲0.7 +0.8%	▼7.1 -8.2%	▼40.6 -33.6%	
비 철 금 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7,525.00	7,745.00	▲220.0 +2.9%	▼10.5 -0.1%	▼1,947.0 -20.1%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2,197.00	2,245.50	▲48.5 +2.2%	▲294.0 +15.1%	▼560.5 -20.0%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21,750.00	22,705.00	▲955.0 +4.4%	▲6,798.0 +42.7%	▲1,780.0 +8.5%

## [반도체]

	'20	'21	'22.7	'22.8	'22.9	10.27	10.28	10.31	10월(~31)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3.11	2.76	2.51	2.30	2.27	2.23	2.4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1.9%	+8.0%	-31.6%	-34.0%	-32.7%	-32.3%	-32.6%	-33.2%	-32.4%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6.83	6.57	6.57	6.57	6.56	6.56	6.57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7.0%	+32.8%	+1.4%	-4.2%	-5.4%	-10.4%	-10.6%	-10.7%	-9.6%

##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9.30	'22.10.14	'22.10.21	'22.10.28	'22.10.28	
						전주(10.21比)	'21년말比
운임지수	5046.66	1922.95	1814.00	1778.69	1778.69	-1.9%	-64.8%

##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8.31	'22.9.30	'22.10.27	'22.10.28	'22.10.31	'22.10.28	
							전일(10.28)比	'21년말比
BDI	2217	965	1760	1612	1534	1463	-4.6%	-34.0%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주관기관



### 협력기관

